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6)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 연 재 목 차 〉

1. 시대적 풍경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즐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중국고전원림의 경관요소는 크게 산체(山體), 수체(水體), 건축, 화목, 원림소품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을 다시 더 세분화 해 보면 산체에는 봉만(峰巒)¹⁾, 구부(丘阜)²⁾, 원산(圓山), 정산(庭山), 토산(土山), 석산(石山), 호석산(湖石山), 황석산(黃石山) 등의 구별이 있으며 수체에는 하(河), 호(湖), 지(池), 천(泉), 간(澗)³⁾, 폭(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건축에도 루, 대, 정, 당, 재, 사, 탑, 랑, 다리, 패망 등의 각종 형식이 있고 화목에는 교목, 관목, 등나무 등의 종류가 있다. 그리고 난간, 바닥의 포장, 분재⁴⁾, 어항, 돌탁

1) 봉만: 연속적으로 잇대어 있으며 정상부가 불썸불썸 튀어 오르고 바닥이 울퉁불퉁한 산봉우리
2) 부구: 구릉을 지칭함
3) 간: 물이 흐르는 골짜기나 계곡
4) 중국에서는 분경(盆景)이라고 함

자와 의자 등과 같은 원림소품이 있다. 이처럼 풍부한 경관 요소들은 하나의 원림을 위하여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간의 공간조합을 통하여 복잡한 예술형상이 조성되도록 한다. 그밖에 건축에 덧붙여진 장식과 채화, 실내에 진설된 가구들까지도 다른 경관요소와 더불어 경관효과를 증진시켜 준다.

6.1 산체(山體)

원림에서 산은 지고무상의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초기의 심미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산과 다른 경관의 조화가 아니라 산이 가진 거대한 규모와 간단하고 강렬한 선을 어떻게 하면 두드러지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개의 산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산체가 단일의 산체를 대치하게 되고 산의 풍부한 형태변화가 원림의 공간예술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대를 거쳐 수대에 이르게 되면 원림 전체의 경관체계에서 산의 지위는 이미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건 미시적이건 상관없이 산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성숙되었다. 그러므로 수대 낙양의 서원(西苑)을 보면 자연 지형의 변화를 이용하여 전체 공원을 대비가 강렬하고 서로 연결되는 산령구(山嶺區), 거원구(渠院區) 등의 경관으로 나누었으며 그 사이에 놓여진 소형의 가산을 풍부한 형태로 빚어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것을 아우르며 파악하는 능력은 이후 원림산법(園林山法)의 기초가 되었다.

산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림공간을 지탱하는 뼈대를 이루고 산체의 선택과 그것을 빚어내는 방법은 원림의 각종경관과 경관구의 조합에 직접 관계가 된다. 하북 승덕에 있는 피서산장의 점유면적은 5.6 평방킬로미터로서 이는 서한시기 상림원 곤명지 면적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조원자는 산세지형의 선택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원림 전체가 전개되며 드러나는 탁월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산체는 군봉회합(群峰回合)하는 원경(遠景)을 원림 안으로 끌어들이기 뿐만 아니라 원림 안에 있는 호수구, 평원구, 산령구의 구분을 자연스럽게 하여 안과 밖, 내부에 있는 각 경관구 공간의 균형과 제약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만일 이러한 자연 산체의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인공 산체를 빚어내는 것 역시 풍부한 공간조건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잘 알려진 실례로 북송의 간악(艮岳)은 “십리의 산으로 천리의 기세”를 보여주었다. 명청시대의 원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파급되었는데 예를들면 상해 예원의 산은 높고 낮은

것이 우회하면서 강(崗)⁵⁾, 령(嶺)⁶⁾, 동(洞)⁷⁾, 간(澗), 탄(灘)⁸⁾, 학(壑)⁹⁾ 등을 절묘하게 만들어냈다. 이처럼 풍부한 공간변환은 지극히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산체의 이합집산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소주의 환수산장(環水山莊), 우원(耦園) 등과 같은 명청대 첩산유구(疊山遺構)를 통하여 충분히 감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체는 주위의 수체, 건축, 화목이 삽입되고 조합되어 일체를 이룬다.

중당 이후 조원가들에 의해 제기된 “지척간을 순회하면서 작은 봉래산을 바라본다”고 하는 미학적 요구는 시종일관 산체 예술의 발전방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방향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청대의 원림은 산체의 조형, 질감, 색조, 분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요소의 배치와 전환을 산체의 공간변화와 긴밀하게 하나로 결합시켰다.

(1) 녹파(麓坡)

녹파는 큰 산의 지맥이 이루는 한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주로 나즈막하고 작은 흙 언덕에 돌을 적절히 배치하고 수목과 화초를 심는다. 이러한 창작수법은 경제적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환경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원림의 담장이나 유랑(遊廊)에 의지한 건축환경의 경계에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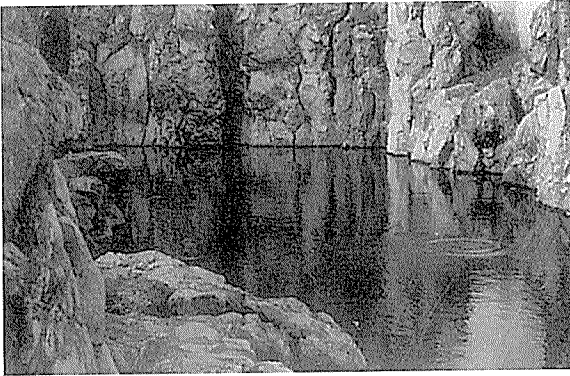
소주 유원에 있는 녹파의 형상

(2) 암애(巖崖)

각아지를 뒀한 절벽의 형상으로 석산(石山)의 경관을 가장 잘 표현한다. 그것은 대부분 산의 일부분을 이루고 원림 담장의 경계를 감추는데도 사용된다. 또한 물가에 면하여 만들어진 것은 수면 위에 투영된 그림자의 효

5) 강: 비교적 낮고 평평한 언덕
6) 령: 재 혹은 고개
7) 동: 동굴
8) 탄: 개펄이나 모래톱
9) 학: 골짜기 혹은 산골짜기의 물웅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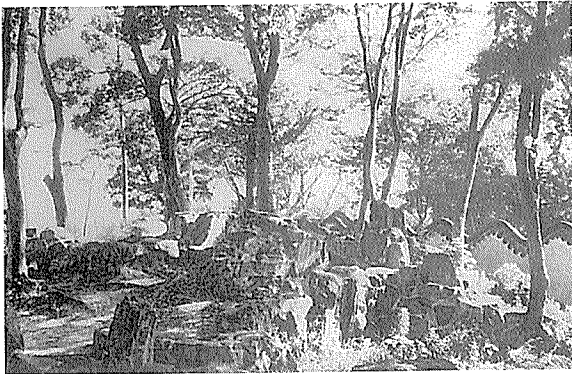
과로 더욱 생동감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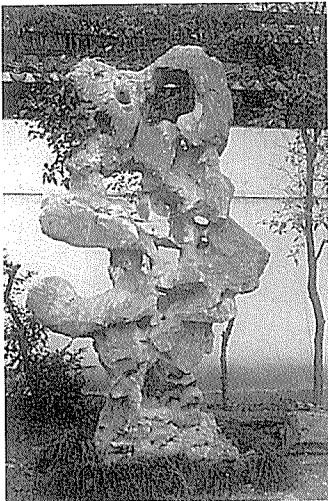
남경 침원의 동북쪽 모서리에 있는 암애의 형상

(3) 봉만(峰巒)

봉만은 원경의 산세를 취하고 산정상의 산림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산정상의 일부분이 솟아 오른 것을 봉(峰)이라고 하는데 작은 돌을 쌓아서 만들거나 한덩어리의 돌을 이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산정상의 기복이 심한 것을 일러 만(巒)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흙산에 돌을 쌓아 표현한다. 특히, 태호석(太湖石)의 석봉(石峰)은 “수·추·루·투(瘦·皺·漏·透)¹⁰⁾”의 4가지



소주 유원의 서쪽에 있는 봉만의 형상



남경 후원의 석봉

10) 돌의 형상이 적절히 호리하고 주름지며 구멍과 틈새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다.

(4) 동수(洞隧)

동수는 동굴 또는 터널의 형태로서 사람을 인도하여 경관지역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창작목적은 실용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유람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재료를 절약하여 거대한 산체를 만들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양주 기소산장의 서쪽에 있는 태호석으로 만든 동굴

(5) 곡간(谷澗)

곡간은 자연의 심산유곡이나 계류가 지나가는 산골짜기를 반영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심어준다.



양주 개원의 추산곡간에 있는 길의 모습

6.2 수체(水體)

수체는 침산예술(疊山藝術)의 발전과 대체로 일치한다. 중국고전원림의 수체는 선진시기 단일의 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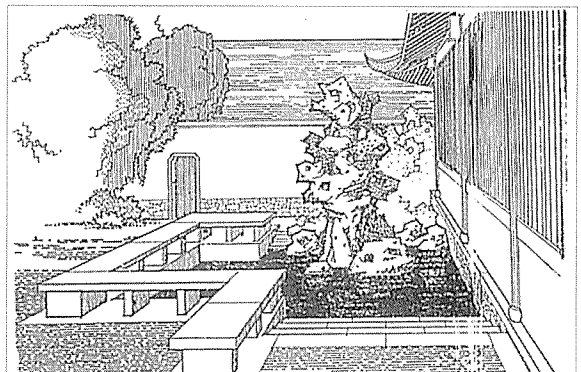
나 고대(高臺)에 의존하여 놓여지다가 진한 시대 이후가 되면 규모가 거대한 주요 경관의 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남북조를 거쳐 수대에 이르러 되면 감상대상과 조직수단의 요소를 겸비한 것으로 한층 더 변모되고, 중당 이후가 되면 호천(壺天) 속에서 넓고 아득한 공간을 생각하는 관념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수체를 어떻게 이용하여 원림체계의 복잡한 경관요소 속에서 중화(中和)의 이상을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중당 이후 원림에서 더욱 전형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호중(壺中)과 개자(芥子)의 격식은 원림의 이수예술(理水藝術)에서 두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그 하나는 관상의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전자의 경우는 수체로 하여금 가능한 한 커다란 공간감과 풍부한 형태변화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개의 경관요소를 융합시켜 일체감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사항의 궁극적인 목적은 호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풍부, 조화, 완전한 경관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의 요구조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백거이(白居易)¹¹⁾, 이덕유(李德裕)¹²⁾, 배도(裴度)¹³⁾ 등의 사람들은 이미 유한한 공간을 갖는 원림 안에서 지(池), 천(泉), 계(溪), 간(澗), 폭(瀑), 포(浦)¹⁴⁾와 같은 풍부한 수체를 만들고 수체 형태의 변화를 원림 전체의 공간과 경관 배치 속에 집어넣었다. 송대에는 이러한 수체가 더욱 많아졌는데 사마광(司馬光)¹⁵⁾이 기록한 독락원(獨樂園)의 경우에는 소(沼), 거(渠), 폭(瀑) 등 여러 가지 수체의 대비, 조합이 있으며 지수(止水)에는 당북(堂北)의 소, 당남(堂南)의 소로 나누어지고 동수(動水) 역시 오파(五派)와 이거(二渠)의 구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체와 건축도 지(池) 사이의 당(堂), 거(渠) 사이의 현(軒), 소(沼) 가운데의 도(島) 등 여러 가지 조합배치의 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수체의 형태와 기능의 복잡함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이격비(李格非)가 사마광의 원림을 묘사한 내용에 의하면 원림의 규모는 날로 작아지고 이수예술(理水藝術)도 정교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림발전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물이 있어 원림의 정자가 생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수예술(理水藝術)의 요지를 갈파하고 있다.

11) 백거이(772-846): 당대의 시인으로 자는 낙천, 별호는 향산거사이다. 저서로는 <백씨정경집> 등이 있다.
 12) 이덕유(787-850): 당대의 명신으로 이길보의 아들. 자는 문오이고 저서로는 <회창일품집>, <치유구문> 등이 있다.
 13) 배도(765-839): 당대의 명신. 자는 중립으로 회채의 난을 평정하고 진국공에 봉해짐.

중국고전원림에서 시와 산수화, 건축 등과 같은 예술의 정미로움은 남송대에 이르러 최고봉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도로 완벽하게 체계화된 이수예술이다. 특히 강남지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은 이수예술의 발전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명청대의 원림은 사회문화체계의 규정으로 인하여 다만 중당 이후의 추세였던 “호천”과 “개자”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송대에 이미 고도로 성숙된 이수예술을 재차 강화할 뿐이었으며 갈수록 한정되어지는 공간 속에서 가능한 모든 수체의 변화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복잡한 수체와 다른 경관 사이에서 더욱 정미로운 평형관계를 만들어냈다. 현존하는 명청대의 원림 가운데 이수예술의 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사가원림인 소주의 졸정원¹⁶⁾이다.

(1)지당(池塘)

지당은 수체의 간단한 형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정형화된 형태와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식 형태의 두가지가 있다. 강남지방의 대부분 원림에 채택된 자연식 지당은 호박(湖泊)에 비하여 비교적 방형에 가깝고 돌장식이 적으며, 수중에는 섬과 교량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수초를 기르고 물고기를 감상하도록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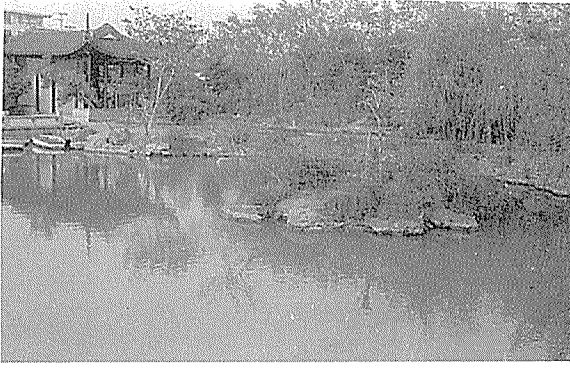


절강 온주에 있는 한 사가원림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지당

(2)호박(湖泊)

호박은 강남의 사가원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체의 형태이다. 원림을 경영할 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대개는 전체 원림이 만드는 경관구도의 중심이 된

14) 포: 물가나 강 어귀를 지칭하는 말
 15) 사마광(1019-1086): 송대의 사학자로 자는 군실, 저서로는 <자치통감>, <독락원집> 등이 있다.
 16) 졸정원에 관해서는 제9회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가정 추하포의 삼은당 앞에 있는 호박의 한 형식

다. 호박은 하나의 자연식 수체로서 형상이 심하게 곡절되어 있고 다량의 자연석으로 호안을 꾸미며 수중에는 섬, 돌다리, 교량, 부두 등을 설치한 것이 지당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3)강하(江河)

강하는 띠 형태의 수체로서 하천의 경관을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수체의 양안은 대개 흙으로 되어 있으며 간간히 돌을 박아 넣었다. 그리고 수면구도에 활기를 부여하고 물길의 길이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S자 형태로 취했다.



소주 유원에 있는 강하의 형태를 표현한 수체

(4)산계(山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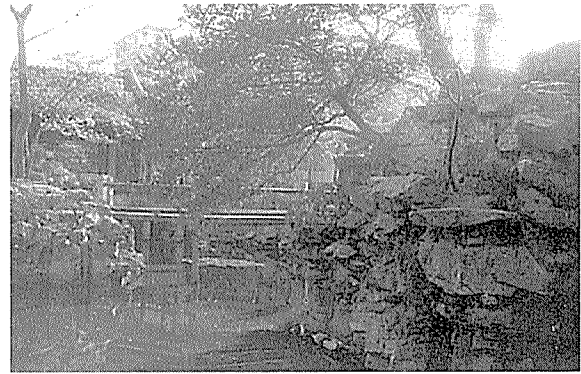


소주 출정원 서쪽 탐영정 일대에 있는 산계 형태의 수체

강하 이외에 띠 형태의 또 다른 수체가 산계인데 이것은 산간의 계류(溪流)를 표현한 것이다. 산간의 계류를 표현한 산계는 평지의 하천과 달리 양안을 모두 돌로서 처리하여 여울과 급한 물살을 이루도록 하였다.

(5)호복(濠濮)

호복 역시 산수가 서로 의존하는 경관의 하나이다. 이것은 좁고 긴 수체이면서 수위가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 만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위가 낮지 않으면 양안을 돌로서 높이 쌓아 상대적으로 수위를 낮추기도 한다.



소주 반원에 있는 호복 형태의 수체

(6)연담(淵潭)

연담은 수면이 집중되어 공간이 협소한 수체이다. 수면의 주위는 모두 돌을 쌓아 만들고 흙을 덮지 않는다. 광선의 처리도 음침하게 하여 밝고 빛나게 하지 않는다. 수위는 아주 낮게 하여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소주 청동원 목향각 앞에 있는 작은 규모의 연담

(7)원천(源泉)

낙차를 이용하여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원천의 창작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원천에 예술적 가공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을 모방한 원천



무석 기정원의 돌을 쌓아 만든 원천

의 처리이다. 전자의 경우는 원림의 터 자체가 자연의 일부
분에 속해 있는 경우로서 도시내의 일반적인 사가원림에서
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수원의 낙차가 부족한 강남의 사가원
림에서는 대개 주로 돌을 쌓아 낙차의 조건을 만들어 두고
비가 오는 날이 되면 비로서 그 효과를 감상할 수가 있다.

6.3 건축(建築)¹⁷⁾

중국의 고대건축은 목구조를 위주로 한다.
기본적인 특징은 기둥과 보, 도리의 부재로 이루어진 구조
체가 지붕의 중량을 받치고 벽체는 단지 주변을 감싸는 역
할만을 하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개별건축이 상호 연결되
어 내부공간을 갖춘 중정을 조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건축
이 원림의 주요한 요소로 존재할 때는 원래의 거주기능 이
외에 독립적인 경관을 구성하며 다른 경관과 서로 조합하여
완전한 경관체계를 구성한다.

중당이후 “호중천지”라고 하는 패턴의 확립
과 더불어 조원자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건축경관을 전체
원림경관체계에 더욱더 철저히 융합시킬 것을 의도적으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개별건축의 위치, 형태, 볼륨, 입면, 평
면, 조형, 실내의 공간의 관계, 심지어 내외부의 장식 등 일
체의 요소들은 모두 자신의 기능과 심미적 필요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과 다른 경관요소들 사이의 평형, 제약관계로
결정되었다. 예를들어 소주 절정원의 원향당은 원림의 주요
건축이고 수체는 또 원림의 주요 경관이므로 원향당과 주요
경관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원향당의 앞뒤가 수면을 면
하고 세워져 있으며 육중한 기둥을 낭하(廊下)에 분산시켜
배치함으로써 사면이 밝고 투명한 창청(敞廳)¹⁸⁾을 형성하
였다. 그 결과 실내에서 실외의 수체경관을 최대한도로 바

라다 볼 수 있어 건축과 자연경관 사이의 조화를 얻었다. 이
와 달리 북경의 이화원에서는 광활하고 거대한 곤명호의 수
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수산에 규모가 큰 고층의 누각 불
향각을 세웠다. 조원자들은 이처럼 건축의 형상에 고심하여
대, 루, 각, 당, 방정(方亭), 원정(圓亭), 선면정(扇面亭), 각
양 각색의 회랑 등의 건축형식을 만들고 주위의 경관과 어
울리는 건축형식을 선택하여 적절히 배치시켰다. 중국의 저
명한 건축학자인 유둔정 선생은 일찍이 소주원림의 건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다.

“대비와 돛보임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척
도를 장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작은 면적의 원림 속에서
이 문제는 특히 두드러진다. 공간을 탁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볼륨은 지나치게 고대(高大)함을 피해야
한다. 청당은 비록 원림의 주요한 건축이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산지(山池)와의 합당한 비례를 잃어버릴 수 없고 청당의 척도
와 그것이 처한 공간의 크기가 서로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절
정원 서쪽의 삼십육원양관은 체형이 지나치게 커서 산지의 척
도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협소한 결함을 낳았다. 망
사원의 청당은 가산의 뒤에 물러나 있어 비교적 좋은 배치이다.
임지누각(臨池樓閣)은 형태가 경쾌하여야 하는데 절정원의 정
관루, 유원의 명비루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하다. 원림의 한 모서
리에 있는 것으로는 유원의 곡계루를 들 수 있고, 누 앞에 낮고
작은 투공의 건축을 이용하여 과도적인 부분을 만드는 것으로
는 망사원의 집허재와 같은 것이 있다. 절정원의 견산루는 연못
속에 있어 지면과 충고를 최대한 낮추었다. 위치도 연못의 서북
쪽 모퉁이에 두었다. 산지 주변의 기타 현, 사, 주랑, 교량, 연못
의 가장자리 등은 모두 직선으로 길게된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곡절(曲折)과 기복(起伏)을 취하여 산수와의 상호 경쟁을 피하
도록 한다. 산 위의 정자는 자그마 하고 깎뚝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가산은 정자의 기단 처럼 되어 웅장하고 기묘한
기백을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은 원림과 그 속에 놓여지는 건
축과의 관계를 아주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그 수법의 기
본 목적은 오직 작은 면적의 원림에 풍부하고 조화로우며
완벽한 경관체계를 만드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6.4 화목과 원림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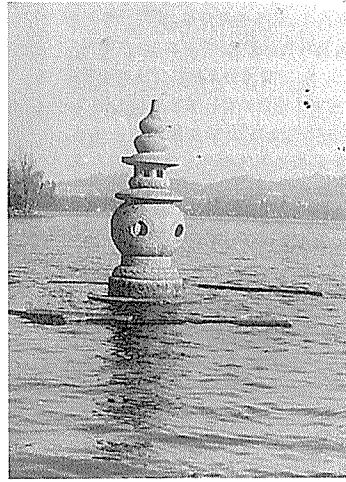
산체와 수체, 그리고 건축을 제외하고 원림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화목과 소품이 있다. 이들의 형

17) 개별건축에 관해서는 제4회 연재물〈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을 참조할 것
18) 창청: 문과 문지방이 없는 청당건축을 말한다.

태는 각양각색이지만 전체적인 원림체계 속에서의 조합원칙은 앞서 언급한 산체, 수체, 건축과 일맥상통한다.

각종의 화목과 소품들은 자연의 분위기를 증대시키고 경과의 효과를 풍부하게 하는 기능 이외에 원림의 공간서열을 조직화하는데 참여한다. 따라서 화목과 소품의 조밀정도는 서로 다른 경관구역의 풍경대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원림에서 가장 쉽게 변화하는 요소인 화목에는 은행과 같은 낙엽수, 백송 같은 상록수, 교목과 관목, 등나무 계열, 대나무, 국화와 같은 화훼류, 부평초 같은 수생식물 등이 주로 사용되며 대형원림일 경우에는 그 종류가 수백종에 이른다. 이러한 화목들은 그 자태, 색채, 향기로서 원림을 유람하는 사람들에게 시각, 후각, 촉각을 통하여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도록 한다. 특히 식물은 자연의 순환질서, 즉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전령사로서 원림주인과 유람객에게 또 다른 사색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화목은 원림건축과 산수의 심미관계와 원림화면구성의 심미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송대 곽희(郭熙)¹⁹⁾의 <임천고치(林泉高致)>를 보면 “산은 물로서 혈맥을 삼고 화목을 모발로 삼으며...산은 물을 얻어 활력이 생기고, 화목을 얻어 화려해진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이 없는 그림의 산이 생기가 없고 화목이 없는 원림의 산 역시 생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화목은 원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원림이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림(林)”이란 글자에 의지하여 조합되고 있어 “원(園)”은 “림(林)”과 불가분의 관계임이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園)과 포(圃)는 동일한 의미로 실용적인 가치에 비중을 둔 식물을 심는 것에서 점차 예술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그 별칭이 임원(林園), 임포(林圃), 임천(林泉), 임정(林亭), 산림(山林) 등으로 불리웠지만 여전히 “림(林)”이란 글자와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원(花園)이라는 별칭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림소품에는 원림의 길, 파골라, 화단 같은 원림 자체의 일부분이 되는 것과 경창, 난간, 계단 처럼 원림건축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원림과 원림건축에 종속되기는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속품이 아니라 풍부한 내용으로 인하여 원림환경과 경치를 돋보이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의경(意境)의 역할까지도 한다. 예를들어 항주 서호의 삼담인월(三潭印月)의 3개 석등, 소주 졸정원의 만취(晩翠)라고



항주 서호의 삼담인월 스투파 형식의 석등

하는 문동(門洞) 등은 대단히 교묘하고 의경의 이미지가 넘쳐흐르는 소품이라고 할 수 있다. 원림소품은 장식성이 강하고 작지만 천박하고 비천하지 않으며 심사숙고하여 조영됨으로써 환경의 특징을 확실하게 드러내도록 한다. 圖

*2000년 12월 호에 게재된 내용 가운데 도판 설명의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95쪽 대경의 그림설명과 96쪽 첨경의 그림설명 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독자제현의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19) 곽희: 북송시기 하양 출신의 화가로 지는 순부, 대표작으로는 <계산추제도권>이 있다.